관계부처합동 | 보도설명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1. 12.(화)

#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(25.2만호)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.

< 보도내용 (경향신문·내일신문, 11.11) >

◈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,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(경향)

◈ 윤석열정부 3년,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(내일)

ㅇ 분양주택 지원 1.1조원, 350% 증가, 허영 “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”

□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**예산편성 체계**를 **신축 매입임대*** **건설 기간(3년)을 고려**하여 **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**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.

*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

ㅇ **‘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·확대** 이후 실소요(건설기간)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**불용액 누적**으로 **집행방식 개선이 필요**하였습니다.

□ **’25년 정부예산안**은 **역대 최대**의 공공주택 **물량***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**모두 반영**하였고, 이에 따라 **예산**이 **일시적**으로 **감소****하였으나 이는 **예산 체계 개편**에 따른 것이며 **세수결손**과는 **관계**가 **없습니다.**

* 총 25.2만호, 공공임대 15.2만호, 공공분양 10만호

** 임대주택 16.7% 감소(16.1조원→13.4조원), 분양주택 27.0% 감소(2.0조원→1.47조원)

□ 한편, 정부는 **서민**의 **주거안정**과 **자기 집 마련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’27년**까지 **공공임대 50만호**, **공공분양 50만호 공급**(매년 각각 10만호)을 추진 중이며,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**’23년 10.0만호, ’24년 11.5만호**에서 **’25년 15.2만호**로 계획대비 **공급물량**을 크게 **확대**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**공공임대**와 **공공분양주택**을 **균형 있게 공급**하여 **서민주거 안정**과 **주거수준 향상**을 위해 **최선**을 다하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주거복지정책관<br>공공주택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광림 (044-201-4539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곽상훈 (044-201-4519) |
| | 예산실<br>국토교통예산과 | 책임자 | 과 장 | 강준모 (044-215-733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